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심리특성이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아버지 양육스트레스를 매개효과로)

최항준¹, 조수경^{1*}
¹배재대학교 유아교육과

The effect of the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parents of children on the childcare stress of the mother

Hang-Joon Choi¹, Su-Kyoung Cho^{1*}

¹Dep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Pai-chai University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심리특성(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우울)이 아버지 양육스트레스를 매개로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데 있다. 육아정책연구소의 한국아동패널(2011) 4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월령이 35개월 이상 42개월 이하의 1,754명의 아동을 자녀로 둔 아버지와 어머니이다. 자료의 분석은 SPSS 18.0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각 변인간의 관계 및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하여 구조모형으로 분석하였으며 모델의 적합도는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 아버지의 심리특성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 심리특성은 아버지 양육스트레스를 매개로 하여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에 영향력을 증가시켰다. 매개변인인 아버지 양육스트레스는 본 연구에서 매개변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how a parents' mental characteristics with preschool children(self-esteem, self-efficacy, depression) has effect on a mother's parenting stress by the medium of a father's parenting stress. The fourth year data of The Korean Children Panel of the KICCE(2011) was used, and the collected data was fathers and mothers with 1,754 children who are more than 35 months but not more than 42 months. For data analysis, analysis of frequency and correlation analysis were carried out using SPSS 18.0, and they were analysed with Structural Model to observe the relationship of each variable and influence, and it was found that the goodness of fit of the model was outstanding. As a result, the psychological traits of fathers impact directly on mothers' parenting stress. Mothers' psychological features increased mothers' parenting stress by a medium of fathers' parenting stress. The study showed that fathers' parenting stress that is a mediator variable performed a role as a mediator variable.

Keywords : Parents self-esteem, Parents self-efficacy, Parents Depression, Father's parenting stress, Mother's parenting stress

1. 서론

현대사회의 급속한 변화 속에서 가족구조가 변화되고 있으며 여성의 사회참여가 확대되면서 부부가 함께 경제 생활에 참여하는 가정이 증가하였다. 가정 내에서 자녀를 양육하는데 있어 어머니의 역할만 강조되었던 전통사회와 달리 현대사회에서는 어머니와 동시에 아버지의 역

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들은 어머니가 자녀 양육에 있어서 주요한 역할에 주목하였던 것에서 나아가 아버지의 양육에 대한 관심으로 확장되었다 [1].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부모는 과거에 비해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다. 경제적인 부담, 급변하는 사회, 경제적 환경, 그리고 여러 가정문제들이 스트레스에 일조를 한다. 개인이 너무 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자신의 능력

*Corresponding Author : Su-Kyoung Cho(Pai-chai University)

Tel: +82-10-5793-7933 e-mail:bbuny2004@naver.com

Received April 20, 2015

Accepted December 4, 2015

Revised (1st November 16, 2015, 2nd December 2, 2015)

Published December 31, 2015

을 발휘하기 어려워지고 부모로서의 양육능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된다.

급변하는 사회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에 부모들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책임감에 따른 자녀양육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고 있다[2]. 부모의 역할을 수행하며 지각하는 스트레스는 Abidin[3]에 의해 양육스트레스로 재개념화되었다. 그는 부모가 지각하는 양육스트레스는 부모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으로 보았으며 부모-자녀 관계나 부모 역할 수행시 발생하는 스트레스는 부모-자녀 관계의 질을 저하시킨다고 하였다. 맞벌이 부부는 직장생활과 가사 및 자녀양육이 가정생활을 병행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가지고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다. 특히 유아를 둔 가정에서는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 중에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일상의 문제점들이 사소하지만 잠재적으로 스트레스가 될 수 있고, 이는 곧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가 악화될 수 있다[4].

한지숙과 유계숙[5]의 연구에서 맞벌이 부부들의 성역할태도는 전반적으로 양성 평등적이고, 여성의 사회진출에 대해서는 허용적이 태도를 가지고 있지만, 자녀양육은 여성의 몫이며 일과 가정생활에서 갈등이 유발되면 여성의 직무를 제한해야 한다는 모순적인 결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일과 가정생활을 병행하고자 하는 여성은 과중한 역할을 수행해야한다는 것을 의미 하고 있는 곧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로 이어질 수 있다. 성역할태도가 부부간에 서로의 역할을 수행해야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곧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로 이어질 수 있다. 성역할 태도가 부부간에 서로의 역할을 가정 내 가사 및 양육담당자라고 규정짓는 것이라면, 현실적으로 자신의 책임이나 배우자에 대한 기대에 비해 가사와 양육을 해내지 못하는데서 스트레스가 유발될 수 있다[6]. 남성은 생계부양자로서, 여성은 가사와 자녀양육 주 책임자로서의 성역할이 비교적 분명하던 과거와 달리 현대에는 여성들의 지속적인 취업으로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여 성역할의 경계성이 모호해지고 있어[7] 사회변화에 따른 성역할태도에 대한 재정의가 필요하다.

전춘애와 박성연[8]은 양육스트레스와 심리사회적 변인에 대한 연구에서 양육스트레스는 자녀를 돌보는 일과 관련된 신체적 요구, 부부 관계의 긴장, 정서적 부담, 사회 경제적 비용, 생활에서의 제한 등의 증가로부터 발생한다고 보았다. 또한 Abidin[9]은 25년 동안의 임상경험

과 많은 문헌 연구를 통해 자녀양육스트레스 척도를 만들고 양육스트레스의 하위변인으로 자녀의 행동특성에 대한 부모의 지각, 부모로서 자신에 대해 스스로 느끼는 지각정도, 일반적인 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구성하였는데 이 가운데 양육 기능과 더욱 밀접한 영역은 부모 영역 스트레스로 보았다[10].

부모의 심리특성은 자녀의 양육하는 행동을 결정짓는 중요 요인[3]으로 심리특성요인(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우울)과 양육스트레스와의 관련성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자아존중감은 자신을 존경하며 스스로에 대한 긍정적인 느낌이다[11]. 자아존중감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개인의 심리에 영향을 주어 중재가 가능하다고 한다[12]. 우리사회는 부족한 환경자원에 비해 인적자원이 풍부하다. 그로인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데 현대의 어머니세대는 전통적인 성역할 태도와 자아실현을 위해 자신의 일을 가져야 한다는 현대적 성역할 요구도 혼재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은 자녀교육에 대한 1차적 책임이 어머니에게 집중되고 자신의 능력과 성취를 자녀에게 투사하게 된다. 그 결과 아버지에 비하여 어머니는 자녀 문제로 더 많은 부담을 경험하게 되며 이런 이유 때문에 많은 어머니들이 심리적 혼란을 느끼고 있다. 아버지의 긍정적인 자아 존중감은 양육방식에 있어서 긍정적 행동으로 이어지는 요인이 되며 자녀에게 수용적인 양육태도를 나타내 애정적이고 긍정적인 양육행동으로 이어진다[13]. 이와같이 자아존중감은 양육행동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며 양육변인에도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기 효능감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위한 행동에 대한 자신이 수행할수 있다고 믿는 자기신념이다. 자기효능감은 Bandura[14]의 사회인지이론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자기효능감이란 바람직한 효과를 산출하는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개인의 신념을 일컫는데 자기효능감은 개인이 특별한 상황에서 자신의 행동능력에 대한 믿음을 말한다. 따라서 자기효능감이 높을 때는 개인이 특별한 행동을 수행할 수 있는 강한 신념을 반영하는 반면에, 자기효능감이 낮을 때는 개인이 그러한 행동을 수행할 수 없다는 신념을 말한다. 이러한 자기효능감은 각 개인의 과거경험과 그 경험에 따른 결과에 기초하여 미래의 결과를 상상하는 과정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14]. 그러므로 생애초기 유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다양한 요인 중 가정환경, 특히 가족의 영향이 강조

되고 있는데 가족 중에서도 유아와 가장 많은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어머니의 영향이 가장 중요하다. 자기효능감이 강한 경우 문제상황에 있어 문제를 이겨내려는 의지가 강하고 자기효능감이 약한 경우 포기하게된다. 자기효능감은 양육스트레스가 생기는 경우 높은 자기효능감인 어머니는 적극적인 노력으로 스트레스를 극복하여 낮은 양육스트레스를 나타내며 낮은 자기효능감의 경우 높은 양육스트레스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15]. 아버지의 자기 효능감이 높으면 아버지의 역할 수행에 대한 믿음과 신념이 강하게 나타나 자녀에 대한 양육행동에 있어 긍정적 양육태도를 나타낸다[16].

우울은 부정적 심리상태로 의기소침하거나 활동의 저하되는 상태[17]로 우울한 심리특성인 어머니는 양육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난다[18]고 하였다. 어머니가 지나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 정신적으로 그 스트레스에 압도당하며, 개인적 스트레스가 많다는 우울이나 불안의 신호이다. 또한 우울수준이 높은 아버지는 자녀와의 관계에서 아버지의 스트레스가 높아 부정적 상호작용을 나타낸다[3]. 이와같은 선행연구들은 부모의 심리특성과 양육스트레스와의 관련성에 대해 알 수 있다.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다룬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연령, 직업, 교육수준, 경제수준, 종교, 자녀의 성별 등의 영향력에 대한 연구[19], 아동의 성별, 연령, 장애정도, 출생순위와 양육스트레스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20]들이 보고되었다. 대부분의 양육스트레스와 관련된 연구들은 부모 중에서도 연구대상을 어머니로 제한하고 있어 아버지,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에 대해 알 아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영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와 어머니를 대상으로 부모의 심리특성(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우울)이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를 매개로 하여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는 부모의 심리특성변인이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제공할 수 있을것이라 기대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선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심리특성(자아존중감, 자기 효능감, 우울)은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2.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심리특성(자아존중감, 자

기 효능감, 우울)이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를 매개로 하여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1년도 육아정책연구소 한국아동패널(PSKC) 4차년도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한국아동패널 데이터는 전국의 영아 부모를 대상으로 ‘대표성’을 보장할 수 있는 층화단계 표본 추출법을 적용하여 실행한 설문 조사이다.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조사한 4차 한국아동패널의 연구 대상자는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의료기관에서 생한 유아 1,754명과 그의 부모이다. 연구대상의 인구학적 배경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Description of the variables (n=1,754)

variables	division	N	%
Sex	Male	903	51.5
	Female	851	48.5
Infants	35~37Months	530	30.3
	38~40Months	1,097	62.6
	41~42Months	127	7.3
Age	Under 30s	119	6.9
	31s~3s	614	35.0
	36s~40s	765	43.5
	41s~45s	184	10.6
	Over 46s	35	2
	Missing data	37	2.1
Father	High School	466	26.6
	College	351	20.0
	University	742	42.3
	Master	180	10.3
	Missing data	5	0.9
Of employment /Of academic	Of employment	1711	97.5
	Of academic	3	0.2
	Unemploedy	26	1.5
	Missing data	14	0.8

Age	Under 26s	36	2.1
	27s ~31s	422	34.9
	32s ~36s	879	50.1
	37s ~41s	352	20.0
	Over 42s	40	2.4
	Missing data	25	1.4
Mother Education	High School	533	30.5
	College	455	25.9
	University	699	38.1
	Master	89	5.1
	Missing data	8	0.5
Of employment /Of academic	Of employment	694	39.6
	Of academic	9	0.5
	Unemploedy	1038	59.2
	Missing data	13	0.7

2.2 연구도구

한국아동패널은 2008년, 2009년, 2010, 2011년에 걸쳐 4차년도 2011년까지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2011년 4차 데이터를 수집하여 2011년에 통계 처리된 한국아동패널 자료를 이용하였다. 연구에서 사용된 도구는 한국아동패널 자료중 부모의 자아존중감, 부모의 자기효능감, 부모의 우울,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이다.

2.2.1. 부모의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Rosenberg[19]가 개발한 자아존중감 척도(Rosenberg Self-Esteem Scale)를 번안하고 수정한 아동패널 도구이다. 질문은 긍정적 진술에 해당되는 5개의 문항과 부정적으로 진술된 5개 문항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질문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는 1점, ‘매우 그렇다’는 4점으로 체크한다. 부모의 자아존중감 설문문항은 4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부정적으로 진술된 문항 5개는 역코딩하여 전체 변수 변환하였다. 자아존중감은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 자아존중감을 나타낸다. 어머니의 자아존중감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0.864$ 이었다.

2.2.2. 부모의 자기효능감

부모의 자기효능감은 Pearlin 자기효능감 척도(PSES)를 활용하였다. 총 4문항이며, Likert 5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1, 매우 그렇다=5)로 구성되어 있다. 평균점

수를 활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자기효능감을 나타낸다. 신뢰도는 Cronbach's $\alpha=0.83$ 으로 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총 4개의 문항이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인 자기 효능감을 의미한다.

2.2.3. 부모의 우울

부모의 우울을 측정하는 도구는 미국 보건면접조사(US National Health Interview Survey, NHIS)에서 정신건강을 측정하는데 사용된 ‘K6’를 사용하였다. ‘K6’는 Kessler et al.[20]에 의해 간편형으로 제작되었다. 총 6개 문항은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의 정도가 높은것을 의미하며 6~13점은 정상 수준, 14~18점은 경도우울, 19~30점은 중도우울로 구분된다. 어머니 우울척도에 대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0.91$ 이다.

2.2.4. 양육 스트레스

양육 스트레스는 김기현과 강희경[21]이 Abidin[22]의 Parenting Stress Index(PSI)와 Grinic과 Parenting Daily Hassles(PDH), Mann과 Thornberg[23]의 Maternal Guilt Scale(MGS)을 기초로 수정 보완한 검사 도구를 사용하였다. 질문은 총 1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질문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으로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가 높으며 낮을수록 양육스트레스가 낮음을 의미한다. 한국아동패널 데이터의 양육스트레스 신뢰도는 Cronbach's $\alpha=0.87$ 이다.

3.1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SPSS 18.0와 Amos18.0을 사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배경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변인간 상관관계를 알아보았다. 연구도구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Cronbach's α 계수를 구하였다. 본 분석에서는 AOMS 18.0을 사용하여 부모의 심리특성(부모 자아존중감, 부모 자기효능감, 부모 우울)이 부의 양육 스트레스와 모의 양육스트레스에 어떠한 경로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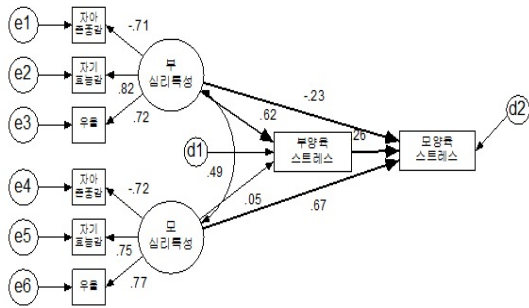
3. 연구결과

3.1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심리특성과 아버지 양육스트레스가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3.1.1. 최종모델분석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의 이론을 근거로 아버지 심리특성, 어머니 심리특성, 아버지 양육스트레스가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구조모델의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한 모델을 설정하여 그 적합성을 알아보았으며 [Table 2]에 나타내었다.

Table 2. The effect of the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parents of children on the childcare stress of the mother



본 연구의 연구 모델은 아버지 심리특성→아버지 양육스트레스→어머니 양육스트레스, 어머니 심리특성→아버지 양육스트레스→어머니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직·간접 효과를 연구하였다. 또한 모델의 분석을 통한 적합도 검정결과를 [Table 3]에 나타내었다.

Table 3. The index table model (n=1,754)

Fit Index	χ^2	df	RMR	GFI	AGFI	NFI	IFI	TLI	CFI	RMSEA
model	269.95	16	.01	.97	.93	.96	.96	.93	.96	.08
Acceptance level			<.05	>.90	>.90	>.90	>.90	>.90	>.90	<.08

*** $p < .001$

3.1.2. 부·모의 심리특성변인과 부 양육스트레스가 모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구조모델 분석

본 연구에서 선정한 아버지 심리특성→아버지 양육스트레스→어머니 양육스트레스, 어머니 심리특성→아버지 양육스트레스→어머니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각 변인간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한 경로계수(regression weights)를 표에 나타내었다. 경로계수의 통계적 유의수준은 기각역(C.R.: t -value)부터 확인해야 하는데, 본 연구에서 기각역(C.R.)은 일반적 기준($p < 0.05$)인 1.965의 기준으로 기각여부를 검정한다. 그러나 구조방정식 특성상 적합도 검정결과가 우수하므로 다른 경로의 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고 해서 무의미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Kline, 2005).

Table 4. Path coefficients of Model

Route	Estimate	S.E.	C.R.	P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father → father's parenting stress	.731	.033	22.331	***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mother → mother's parenting stress	.046	.024	1.898	.058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father → mother's parenting stress	.305	.041	-7.475	***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mother → mother's parenting stress	.746	.031	24.208	***
Father's parenting stress → mother's parenting stress	.291	.027	10.613	***

*** $p < .001$

경로계수의 표준화계수(estimate)를 이용하여 경로간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표에 각 변인간의 직접효과(direct effect)와 간접효과(indirect effect), 총효과(total effect)를 구하여 제시하였다.

Table 5. Direct and indirect effects on parenting stress of mothers gave effect

		The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s	Effects of Total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father	father's parenting stress	.62		
	mother's parenting stress	-.23	.14	-.09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mother	father's parenting stress	.05		
	mother's parenting stress	.67	.03	.70
father's parenting stress	mother's parenting stress	.26		.26

*** $p < .001$

Table 5를 참고하여 본 연구모델의 직·간접 효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아버지의 심리특성의 경우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직·간접효과는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아버지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직접 효과는 62%였으며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간접 효과는 14%로 나타났으며, 총효과는 9%로 나타났다.

어머니 심리특성은 아버지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이 5%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67%, 총효과는 70%로 아버지 심리특성 변인보다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아버지 심리특성 변인보다 어머니 심리특성 변인이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더 주는 것은 물론 아버지 양육스트레스를 매개로 간접효과는 적지만 총 효과를 배가 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매개변인인 아버지 양육스트레스는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에 26%의 영향력을 나타내었다. 이것은 아버지 양육스트레스는 아버지 심리특성이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매개 변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직접효과 중 어머니 심리특성이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 다음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변인임을 알 수 있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심리특성(자아존중감, 자기 효능감, 우울)이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를 매개로 하여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을 반영하여 매개효과에 관한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심리특성(자아존중감, 자기 효능감, 우울)이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아버지의 긍정적인 심리특성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낮출 수 있음을 의미한다. 아버지의 긍정적인 심리는 어머니가 양육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을 경험할 때 긍정적 영향을 주어 양육스트레스를 덜어 줄 수 있다. 아버지의 심리특성과 양육행동의 영향력을 밝힌[21]의 연구와 아버지의 양육행동과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의 영향력을 밝힌 [22]의 연구는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이들 연구를 종합하면 아버지의 심리특성이 아버지의 양육행동

에 영향력을 주어 결국에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에도 영향을 준다는 결과를 시사한다. 하지만 이들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심리특성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밝히지 못하고 각각의 연구에서 변인간의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 아버지의 심리특성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의 관계를 깊이있게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둘째,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심리특성(자아존중감, 자기 효능감, 우울)이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심리특성이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에 매우 강한 작용을 한다는 연구[17]와 같은 결과로 어머니 심리특성에 따라 양육스트레스에 긍정적, 부정적 영향력이 있다는 동일한 결과를 지지한다. 이러한 결과는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자기 효능감이 높을수록 우울이 낮을수록 양육스트레스는 낮아지며 자아존중감이 낮으며 자기효능감이 낮을수록 우울이 높을수록 양육 스트레스는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심리특성(자아존중감, 자기 효능감, 우울)이 아버지 양육스트레스를 매개로 하여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에 직·간접적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아버지의 긍정적인 심리특성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낮추는데 직접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며 아버지의 긍정적 심리특성은 아버지의 낮은 양육 스트레스에 영향력을 나타내며 동시에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를 더 낮추는데 영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데 있어서 남편의 영향력이 중요하다고 제시한 [23]의 연구와 일치하며 아버지의 양육변인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미친다는 연구[22]와 비슷한 맥락이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에 대한 참여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과거와 다르게 어머니의 양육에서 아버지의 양육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어 어머니가 느끼는 양육 스트레스만큼 아버지도 양육에 대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아버지의 심리상태와 더불어 아버지가 경험하는 양육 스트레스에 따라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므로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심리를 위한 지원과 더불어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를 낮출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의 모색으로 부모의 양육을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심리특성(자아존중

감, 자기 효능감, 우울)이 아버지 양육스트레스를 매개로 하여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에 직·간접적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어머니의 긍정적인 심리특성은 어머니가 양육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양육스트레스를 낮출 수 있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으며 어머니의 부정적 심리특성은 아버지의 양육 스트레스를 매개로 할 때 어머니 양육 스트레스가 더 높아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18]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어머니의 성격특성과 양육스트레스와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와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은 양육행동에 직접, 간접적 영향력을 행사하므로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긍정적 심리상태를 위한 부모교육이나 정서적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아버지 양육 스트레스와 어머니 양육 스트레스에 대한 영향력과 관련된 구체적 연구가 부족하여 본 연구의 결과에 대한 후속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할 수 있다.

종합하면, 유아기의 자녀를 둔 부모의 심리특성은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를 매개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심리적 안정에 따라 부모는 자녀 양육에 있어 안정감 혹은 불안감을 가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부모의 심리적 안정감은 부모의 양육스트레스를 낮추어 부모가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실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이에 가정내에서 부모의 심리상태는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를 매개로 하여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높이거나 낮추는데에 주요한 영향력이 있음을 밝혔는데 그 의의를 둘 수 있다.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스트레스는 부모 자신의 심리적인 복지감은 물론, 자녀에 대한 태도, 자녀와의 상호작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부모 역할 수행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양육행동이나 양육효능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유아의 성장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연구의 후속연구를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부모의 심리특성 이외에도 직·간접적인 요인들과 함께 다각적인 연구를 통해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심리특성과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의 영향력을 알아보았다. 양육 스트레스는 양육특성의 일부로 부모의 심리특성이 양육효능감, 양육행동, 등 양육변인과

도 관계성을 알아보는 후속연구가 요구되어진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심리특성과 어머니의 심리특성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력을 밝혀내고 있으나 아버지의 심리특성과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의 영향력에 관한 연구와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간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으로 심도있는 연구의 필요성을 제안한다.

References

- [1] E. G. Han, Relationship between father's involvement in child-rearing and child's social competence. MS thesis Seoul ˆEducation University, 2004.
- [2] H. Y. Seo, Relations of work-father role conflict with parent satisfaction and parenting sence of competence. MD Thesis Yeonsae University, 1998.
- [3] Abidin,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Behavior",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Vol21, 4, pp.407-412, 1992.
DOI: http://dx.doi.org/10.1207/s15374424jccp2104_12
- [4] Peterson, G.W., & Hennon, C. B, Conceptualizing parental stress with family stress theory In P. C. McKenry, & S. J. Price(Eds.), *Family and change: Coping with stressful events and transitions* (3rd ed.). CA: Sage Publications, 2005.
- [5] J. S. HAn, & G. S. You, "The Effects of Employees' Gender Role Attitudes, Job Involvement, and Family Involvement on Work-Family Balance". *Korean Journal of Family Social Work*, Vol.25, No.5, pp. 143-166, 2007.
- [6] M. W. Kim, & M. J. Kang, "The Effects of Double-Income Couples'Gender Role Attitudes and Recognition of Social Support on Parenting Stress". *Korean Journal of Family Social Work*, Vol.49, No.8, pp. 25-35, 2007.
- [7] Maume, D. J., Gender differences in restricting work efforts because of family responsibilities. *Journal of Marriage & Family*, 68, 859-869. 2006.
DOI: <http://dx.doi.org/10.1111/j.1741-3737.2006.00300.x>
- [8] C. A. Jeon, & S. Y. Park, "Exploration of psychosocial variables related to mother's parenting stress". *Korean Journal of Family Social Work*, Vol.16, No.1, pp. 95-105, 1998.
- [9] Abidin, R. R., *Parenting Stress Index* (3rd ed.) Charlottesville, VA: Pediatric Psychology Press.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4th ed.), 1990.
- [10] A. N. Jeong, Parenting stress of preschool children's mothers. MS thesis Kyongwon University, 2007
- [11] Rosenberg, Morris, "Society and adolescent self-image", Middletown, CT, England: Wesleyan University Press, 1989.

- [12] C. Y. Jeong, The Relationship of Self-esteem and Social Support to Degree of Stress in Child-rearing among Mothers Having Children. MD Thesis Dongkook University, 2004.
- [13] S. H. Cho, The Relationship between fathering Role practices and father's psychological Experiences. MD Thesis Sookmyoung Women's University. 1988.
- [14] Bandura, A., & Cervone, D., differential engagement of selfreactive influences in cognitive motivation.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38, 92-113. 1986.
DOI: [http://dx.doi.org/10.1016/0749-5978\(86\)90028-2](http://dx.doi.org/10.1016/0749-5978(86)90028-2)
- [15] Y. S. Song, & Y. J. Kim, "The Effects of Parenting Stress and Parenting Knowledge on Parenting Self-Efficacy: A Comparative Study between Infant and Early Childhood Mothers". *Early Childhood Education, The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vol.13, No.3, pp.181-203, 2008.
- [16] H. J. Shin, Effects of Emotional Climate in Family of Origin, Marital Satisfaction, and Parenting Role Competence on Father's Parenting Involvement. MS thesis Chungbuk University, 2007.
- [17] H. J. Im,& H. J. Choi,& S. N. Choi, "The Effect of Father's Participation in Child-care, Parental Characteristics, and Mother's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n Mother's Parenting Characteristics". *Journal of Future Early Childhood Education*, Vol.19, No.2, pp.83 - 107, 2012.
- [18] Y. H. Ahn, & Y. H. Kim, & S. Y. Han, "Effects of Children's Temperament, Mother's Characteristics and Couple's Child-rearing Agreement on Mother's Parenting Stress". *Journal of domestic science*, Vol.12, No.2, pp.1 - 14, 2008.
- [19] J. H. Kim, A Study on the Stress and Social Support of the Fathers with Mentally Retarded Children. MD Thesis DaeGu University, 2004.
- [20] J. H. Ru, A Study on the Stress and coping Behaviors of The mothers of The children with cerebral palsy due to the latter's abnormal adl and social support. MD Thesis Ewha University, 1990.
- [21] Y. R. Heo, & H. J. Yoon, "A Study on Father's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and Fathering Behavior in Childrearing : Based on the degree of satisfaction in marriage and occupation, self-esteem, and perceptions about his own father's childrearing pattern". *Early Childhood Education, The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vol.4, No.2, pp.145-157, 1999.
- [22] H. J. Choi, & S. K. Cho, & M. J. Kim, "The effect of the childcare characteristics shown by a father of an infant on the childcare stress of the mother". *Early Childhood Education, The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vol.20, No.1, pp.1-20, 2015.
- [23] J. S. Lee, "The effect of childrearing stress and social support on husband-wife relationship of parents with preschool children". *Early Childhood Education, The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vol.8, No.2, pp.183-199, 2003

최 항 준(Hang-Jun Choi)

[정회원]



- 2010년 2월 : 배재대학교 배재대학원 유아교육학과 (문학석사)
- 2013년 2월 : 배재대학교 배재대학원 유아교육학과 (문학박사)
- 2010년 3월 ~ 현재 : 배재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강사

<관심분야>

유아교육, 영유아 발달, 통계학

조 수 경(Su-Kyoung Cho)

[정회원]



- 2011년 2월 : 배재대학교 배재대학원 유아교육학과 (문학석사)
- 2012년 3월 ~ 현재 : 배재대학교 배재대학원 유아교육학과 박사과정
- 2008년 9월 ~ 현재 : 자연마을 어린이집 원장

<관심분야>

영유아 발달, 유아교육, 부모교육